

해타론 (1904)

길선주

“ 내가 어나 나라 명담을 드르니 동녹은 쇠를 먹고 해타는 사람을 먹는다 하는 말을 듣고 대단이 이상이 녀여 생각하대 범과 사자는 사람을 해하는줄노 알거니와 해타라 하는 짐생은 엇더한 짐생이기에 능히 사람을 먹는고하여 심히 하옥하더니 내가 몇 날을 궁구하여 그 짐생의 사적을 분명히 깨다른고로 몇 마대 니아기를 이 아래 모도 비유로 말하오니 침 군자는 자세이 뜻을 생각하여 보시고 이 해타 짐생의 환을 피하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생각건대 이 세상 사람이 다 소원이 잇는데 엇던 사람은 성현 되기를 소원 이오 엇던 사람은 문장 되기를 소원 이오 엇던 사람은 님군 되기를 소원 이오 엇던 사람은 대장 되기를 소원 이오 엇던 사람은 목사나 교사 되기를 소원 이오 엇던 사람은 벼슬 하기를 소원 이오 엇던 사람은 농사 하기를 소원 이오 엇던 사람은 장인의 재조 배호기를 소원 이오 엇던 사람은 장사하기를 소원 이오 엇던 사람은 부자 되기를 소원 이니 이 모든 소원이 사람마다 각각 잇는고로 이 세상은 가히 소원 성 이라 낄알거시오

사람마다 소원 만 잇슬 뿐 아니라 성취하기 까지 바라는고로 성취 국이 잇는거슬 말한거시오 대저 넓은 천하남녀로소 허다한 사람들이 다 소원 성에 잇서서 성취 국으로 드러가기를 바라는거슨 성취 국 님군이 드러오는 사람마다 밋는 표를 의지하여 성현이나 문장이나 목사나 교사나 님군이나 대장이나 벼슬이나 농사나 장사나 부자 되는거시나 이 모든 직분을 소원 대로 일우어 주는고로 사람들이 다 이 성취 국으로 드러가기를 바라나

그러나 엇던 사람은 이 소원 성에서 늙어 죽는이 도 만코 엇던 사람은 이 소원 성을 떠나 성취국으로 드러갈새 사로 지경을 지나면 여러 간내 길이 만흔지라

사로라 하는거슨 이 길노 가는 사람마다 자연이 무삼 생각이 만이 니러나는고로 사로라 하는거시오 여러 갈내 길 일흠들은 취주로도 잇고 음란 로 도 잇고 연락로도 잇고 금심로도 잇고 자만로 도 잇고 이심로 도 잇는거시니

취주로라 하는 거슨 이 길 가해 집집마다 무루 닉은 술이 만하서 그 술 내암새가 길 가는 사람의 코를 질너 마음을 혼돈케 하는고로 이 길노 가는 사람은 이 술을 먹고 취하여 성취 국을 니저버려 스스로 망하고

또 음란로라 하는거슨 이 길거리마다 아름다운 미색이 만히 나아와서 공교한 말과 아름다운 태도로 길 가는 사람을 꺾이는고로 이 길노 가는 사람은 음란에 빠져 망하고 연락 로라 하는거슨 이륙륙 아름다운 소리가 귀를 즐겁게 하고 입을 새롭게 하는고로 이 길노 가는 사람은 연락에 반하여 성취 국을 니저버리고

또 급심로라하는 거슨 이 길에 돌이 만코 수풀이 깊혀 길이 험한 중에 모진 바람이 사람의 몸을 날리는고로 사람이 능히 바람을 이기지 못하여 빨리 다라나다가 발이 돌에 부딪치며 몸이 수풀에 걸려서 엎더져 온 몸이 상하여 사다 성취 국에 드러가지 못하며

또 자만 로라 하는거슨 이 길노 가는 사람은 자만 한 생각이 스스로 나매 제가 배흔것과 드른것과 행하는 재조가 세상 사람 우혜서 뛰여날까 생각한 고로 압흐로 나아가지 아니 하여 그 자리에서 늪어 죽고

또 이심 로라 하는 거슨 이 길노 가는 사람은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절노 나서 농사를 할까 장사를 할까 이거슬 할까 저거슬 할까 두 가지 마음이 서로 니러나 한 가지 도 작정치 못 하여 이렇저렇 어름어름 세월을 보내여 성취국으로 나아가지 못 하는지라

이 여러 가지 길노 가는 사람은 스스로 패망하고 그 중에 정 로가 잇스니 이 길은 바로 성취국으로 통한 길이라

혹 엇던 사람들은 이 길노 향하여 정의 문으로 드러가나니 정의 문 이란거슨 이 문으로 드러가면 아모 생각이던지 한가지 뜻 대로 작정이 되는 고로 이 문 일흠은 정의 문 이라 한거시라 이문으로 드러가는 사람들은 이 문 직히는 주인이 잇서서 그 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열어 준 후에 그 사람들의 재지를 시험하여 보고 각각 표지를 난화 주는대 이 표는 문장과 성현과 목사와 교사와 님군과 대장과 사농공상의 표니 이 모든 표를 각각 재조 대로 맞겨 성취 국으로 보내나니

이 문을 지나면 얼마 가지 못하여 모안 로라 하는 길이 잇스니 성취 국으로 가는 사람은 이 길을 지나서야 갈터인데 이 지경을 당한즉 마음 가운데 스스로 평안케 함을 도모하는 생각이 니러나서 엇더케 육신을 평안케 하며 엇더케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런 생각이 나느고로 이 길 일흠은 모안 로라 한거시라

이 길 가운데 한 큰 피악한 즘생이 잇스니 그 형상이 피피망측하고 그 성품이 흉악하며 허리는 길고 그 몸과 그 머리는 심히 크고 그 입이 대단히 넓어 큰 사람 이라도 능히 통으로 삼키는지라 그러나 그 네 발은 심히 짧으니 힘써 빨리 다라나는 사람은 따르지 못하여 먹지 못 하는고로 그 즘생이 주릴 때에는 항상 먹는 풀이 잇스니 일흠은 남초요 또 다른 일흠은 담배라 그 즘생이 입으로 악한 내암새를 토하면 악한 괴운이 이 모안 로 사면에 가득하여 길 행하는 사람이 이 내암새를 한 번 맛흐면 장사라도 취하여 엎더지나니 그 후에 이 즘생이 즉시 그 사람을 통으로 먹나니 이 즘생 일흠은 해타라 본래 하나님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 이와를 내신 후에 하나님의 명을 순이 직히면 억만 년 태평한 안락과 무궁한 복록을 누리게 하섯더니 이 두 사람이 명을 어기고 죄를 번한 후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피로운 일이 생긴 중에 이 피악한 해타 즘생이 모안로에 비로소생 겠는지라

이 즈생이 이 길에 항상 잇서 성취 국으로 드러가는 사람마다 잡아 먹는고로 성취 국으로 드러가는 사람이 적으매 그 나라에 직분을 맞하 누리는 이가 별노 업는고로 하나님께서 소원성 사람들을 심이 어엿비 너이사 일천구백사 년 전에 예수를 이 소원 성에 강생 식히사 예수를 밋는 사람들은 인기를 주어 성취국으로 드러가게 하시대 그 나라에 드러가서 그 직분을 다한 후에 그 나라에서 떠나서 영생국까지 드러가 영원한 안락을 누리게 하시매 사람마다 예수의 인기를 가지고 정의 문으로 드러가는 사람은 그 문 주인이 반가히 영법한 후에 각 사람의 재지를 보아 부삼 표던지 주고 경성 갑옷을 낚혀 모안 로를 지날 때에 해타 즈생의 해를 면하게 하나니 이 경성 갑옷은 아모 사람이나 낚으면 몸이 가바얍고 정신이 새로워 용맹이 나서 거름이 빨나 해타 즈생이 능히 따르지 못 하는고로 일홈은 경성 갑옷 이라 하나니라

예수의 의기를 가지고 성취 국으로 드러가는 사람이 만흔고로 마귀의 님군 사탄이 제가 차지한 사이에 잇는 백성들이 업서지는거슬 심이 근심하야 여러 신하를 불너 서로 의론하야 갈아대 전에는 성취 국으로 드러가는 사람도 적고 소원 성 백성들이 영생 국이 잇는거슬 자세히 아지 못 하고 드러가기도 어렵더니 지금 예수의 인기를 가지고 성취 국으로 드러가기가 쉬운고로 소원 성에 허다한 백성이 모도 성취 국으로 드러갈 뿐 아니라 영생 국까지 가는 사람이 만흐니 우리 소원 성에 잇는 백성은 다 업서지기가 쉬운즉 경내들은 엇더케 하여야 서우치 국으로 드러가지 못 하게 할 방책을 궁구하라 하니

문득 세 신하가 일시에 출판주 왈 신등이 막을 방책을 올니리다 한 대 왕이 갈아대 한 신하 식 말하라 하니 한 신하가 나아와 알외여 갈아대 신이 계교를 생각건대 성취 국으로 가는 사람과 말하기를 그대들이 성취 국으로 갈지라도 무익하고 영생 국이 잇다 하는 말은 도모지 허망한 일 이니 이런 헛된 일노 말매암아 공연이 고생 만 하지 말고 빨니 소원 서용으로 도라가라 하면 족히 막을 방책이 될 듯 하여이다 한 대 왕이 갈아대 이는 무지한 말이니 그 계교는 도모지 쓸대업다 하니

또 한 신하가 나아와 알외여 갈아대 신이 한 묘한 계교 잇사오니 이제 그 계교를 올니리다 하고 갈아대 신이 성취 국으로 가는 사람과 말하기를 영생 국이 잇는거시 분명하고 성취 국 도 조코트마는 래일 즐거운거시 오날 즐거운 것 만 갖지 못하고 명년에 평안한거시 금년에 평안한것 만 갖지 못하니 이 모안로 지경이 대단이 아름다온고로 각처에 경치가 허다하야 놀기도 조코 가히 안락을 누릴 만한 때이니 사처에 혼미화 아름다온 빗출 구경하며 향기로온 내암새나 맛고 만일 목마르면 쿠귀천물이나 떠 먹으며 또 심회가 울적할 때에는 망리수 나무 아래서 맑은 바람이나 쏘이며 다수 산에서 밤낮 잠이나 자서 귀중한 육신을 평안케 함이 조호리라 하겠삼나이다 하니 혼미화라 한 쫓은 사람이 한 번 그 빗출 보고 내암새를 맞으면 정신이 아득케 되는고로 그 일홈은 혼미화요 무귀천이라 한 물은 사람이 한 번 마시면 아모 괴운이 업서져서 조금 도 움작이기가 슬흔고로 일홈이 무귀천 이라 한거시오 망리수라 한 나무는 사람이 이 나무 바람을 한 번 쏘이면 마음 가운데 참리치를 니저버리는고로 이 나무 일홈은 망리수라 함이오 다수 산이라 한 거슨 이 산에 경치가 매우 아름다와 사람이 구경하기가 조호나 이 산에 올라가는 사람마다 조롭이 절노 만이 오는고로

그 산 일흠은 다수 산이라 하나이다 한대 왕이 이 말을 듣고 갈아대 이 계교가 심이 묘하야 조코 조카마는 아조 조치는 못하다 하니

또 한 신하가 나아와 알외여 갈아대 신의 방책을 드르소서 신은 성취 국으로 가는 사람들과 말하기를 성취 국으로 드러가는거시 맛당한 역사요 영생국의 무궁한 복락을 누리는 거시 아름답기는 하나 그 곳에 가기가 아직 급하지 아니 하니 조금 잇다가라 하고 즉시 인기를 그 니마에 부쳐 준 후에 모안로 지경에 해타 즘생으로 아여곰 목목히 직히다가 신의 인기를 니마에 붓치고 오는 사람이 잇거든 그 때에 해타 즘생이 기운을 불어 악한 내암새를 토하면 그 사람이 취하야 업더진 후에 통으로 삼켜 먹게 한즉 성취국과 영생 국으로 드러가는 사람이 적으리다 한대 마귀의 님군 사탄이 박장대소하여 갈아대 선하다 선하다 이 계교여 이 계교여 기묘하다 기묘하다 하고 그 신하를 즉시 명하야 갈아대 이 법을 빨리 행하라 하매 그 신하가 명을 듯고 그 대로 행하니 이 때로 브터 모안로 지경 안에 해타 즘생이 만히 생겨 성취국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매양 해하는지라

이 지경에서 해타 즘생의 계상한 사람의 사적을 대강 말하노니 유로바에 한 녀인이 잇스니 이 녀인이 세수를 부즈런이 할 때에는 일 년에 두 번 하고 일즉이 니러날 때에는 상오 열두 시에 니러나고 한 평상에 담배나 먹으며 이 집 저 집 마음이나 단니며 놀기를 조화하는고로 부모가 모아 준 세간을 다 허비하고 류리 개걸하야 엇어 먹으며 단니니 람루한 의복은 살을 가리우지 못 하고 추추한 형상은 사람 보기에 더러운지라 하로는 이 녀인이 길을 가다가 길 가에서 은전 한푼을 엇은고로 마음에 생각하대 이 돈 한 푼으로 무삼 장사를 하여야 리를 만이 엇을고 하더니 한 생각을 엇어 갈아대 적은 미천 가지고 만흔 리 엇는 거슨 술장사 밧기 업다 하고 그 은전 한 푼을 가지고 술 집에 가서 모주를 사다가 랭수를 타서 저자에 낫코 오며 가는 사람에게 팔새 지나가는 사람들이 술이 조코 나즌거슨 아지 못하고 목마른것 만 생각하야 돈을 주고 사먹으니 술을 다 판 후에 회계하여 본즉 은전 삼 사 푼이 남은지라 심중에 크게 깃버 말하기를 한 푼 어치로 삼사푼리가 남앗스니 이 삼사 푼으로 술을 사다가 팔면 몇 십 원이 되리로다 하고 그 돈을 가족 부대에 낫코 술 집으로 모주를 사러 가다가 한 강 가홀 당하니 모래 밧치 심이 조코 날이 양기가 도타온지라 생각하대 이런 조흔 날 이런 모래 밧출 당하여 육신을 편안케 낫잠이나 한잠자자 하고 가족 부대를 압헤 낫코 잠을 깃히 드럿더니 홀연이 청천에 뜬 소리개 한 놈이 살 갓치 다라나려 부대를 것어 차고 공중으로 다라나니 그 날개 바람 소리에 자던 낫잠을 문든 깨여 공중을 처다 보니 소리개가 가족 부대를 먹을 고기 만침 알고 두발노 못잡고 강을 건너 날아가며 강 가운데 눕히 떠서 부대를 무러 뜻으니 부대가 찌어지며 속에 잇는 사 오 품 은전이 모도 깃흔 물노 내려지니 이 녀인이 탄식하야 갈아대 물노 엇은 돈이 물노 드러가는고나 하고 전전 걸식하였스니

이 갓흔 사람의 모양은 이 모안로 지경 안에 잇는 해타 즘생의 해를 밧은 사람이라 이 모안 로를 지난 후에 고난 산이 잇스니 이 산은 심이 높고 길이 험한고로 올라가는 사람마다 곤고함이 만흔고로 일흠을 고난 산이라 하니라 그 산을 다 올라가면 휴식 정이 잇스니 정자가 매우 조코 경치가 아름답은고로 곤고하게 이 산을 넘는 사람들은 정자에 쉬기가 조흔고로 그 일흠은 휴식 정이라 함이오 이 정자 주인이 고난 산을 넘어 성취 국으로 드러가는 사람들을 보면 선한 말노 그

마음을 위로하며 표를 써서 주고 반갑게 전송하나니 이 산에서 바라 보면 성취 국이 멀지 아니 한지라

성취 국으로 드러가는 사람들은 불가불 이 산을 넘어서야 가는지라 해타 증생의 해를 피하고 고난 산을 지나 성취국으로 드러간 사람의 사적을 대강 말하노니 동양에 동중서는 집이 가난하여 종용이 글 공부할 방이 없는고로 침방 가운데 삼년을 장을 드리우고 공부하고 광형 도 집이 빈한하여 불형 기름이 없는고로 자기 집 답을 뚫코 다른 집 불 빛출 인하여 공부하였스니 이 두 사람이 다 문장을 일우엇고 요 님군은 백성의 정사 살피기를 위하여 사사의복을 입고 부즈런이 거리에 놀으섯고 순 님군은 농업을 근이 힘써 항상 력산에서 밧갈므로 사업을 엇어 님군이 되엿스니 이 두 님군은 성군을 일우엇고 서국에 이세택은 우물 방 틀 돌이 드레줄에 달어 깃히 패임을 보고 부즈런함을 깨다리 성현을 일우엇고 동양에 공자도 가족 책이 세 번식 해여지도록 공부하여 성현이 되엿스며 주매신은 곡식 명석이 비에 뜨는거슬 깨닫지 못하도록 공부하여 벼슬을 하엿고 심이 성도의 바울도 아라배에 가서 항상 기도를 부즈런이 하엿고 예수피서는 십자가에 못박히기 전 날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도라와서 제자들이 게을너 잠자는거슬 보시고 심이 근심하여 갈아사대 항상 깨여 기도하여 위태함을 면하라 하섯스니

이 모든 이의 사적은 성취 국으로 드러간 사적이라 모안로 지경을 직히는 마귀의 인기 표는 국문으로 녀 자니 할수업다 한 말이오 고난 산 주인의 인기 표는 할수잇다 한 말이라 여러 군자는 할수업다 한 마귀의 인기를 떼어 버리고 힘써 해타 증생의 화를 피하여 고난 산을 차저 가서 그 주인의 할수잇다 한 인기를 엇어 가지고 모도 성취국으로 드러가기를 바라나이다.”